



綠담笑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월,
착한 소비로 지구에게
녹색을 선물하자.

#소담 #에코팀 #감량
#녹색소비 #제로웨이스트 #착한소비

유혜정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감사의 계절, 지구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는 방법



거리엔 초록의 싱그러움이 넘쳐나고 가벼워진 옷차림에 발걸음이 신난다. 매일매일 좋은 일들이 쏟아질 것 같은 봄의 계절, 오월이다.

오월은 감사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어 정성스런 마음을 담아 선물을 건네며 고마움을 전한다. 오월은 여행의 달이다. 화사한 꽃이 곳곳에 피고 바람도 시원하니 가족과 친구, 때론 혼자서 산과 들로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오월은 축제의 달이다. 봄을 맞아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를 열어 맛있는 음식과 멋진 풍경, 풍성한 공연으로 시민들을 맞이하니 어느 곳을 가든 즐거움이 가득 하다.

그래서 오월은 감사를 나누고 즐겁고 신나는 달이다. 즐겁게 떠나고 맛있게 먹고 모처럼 여유를 즐긴다. 나도 그 대열에 끼어 선물을 고르고 여행지를 선택하고 무엇을 먹을지 상상하면서 즐거운 고민에 빠져든다. 친구와 여행 날짜를 잡고 설레임으로 콧노래를 부르게 된다.

반면, 즐거움이 지나간 자리에는 쓰레기가 넘친다. 과대 포장된 선물, 축제에서 쏟아져 나오는 일회용품들, 즐거움은 잠깐인데 쓰레기는 오래 남아 우리의 건강을, 환경을 해친다. 그래서 일까? 선물을 사도 축제를 가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쓰레기 줄이기, 보이는 만큼 줄인다.

직업적 특성 때문일까 나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쓰레기이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 하는 일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을 모아내는 일도, 쓰레기가 순환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도 늘 고민이다. 2030년(서울 및 수도권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소각장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대두될 것이기에 쓰레기 감량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시민들과 쓰레기를 줄여 보고자 시작한 일 중 하나가 '자원순환118 에코팀(1인1일800g 쓰레기 배출)' 활동이다.

쓰레기를 줄이려면 내가 주로 배출하는 쓰레기 종류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매일 나오는 쓰레기 중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주부, 대학생, 어르신 등 서로 다른 세대들로 에코팀을 구성하고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를 분류하고 무게를 재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쓰레기가 있는지,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제안하도록 하였다. 모두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놀랐고 불편했지만 줄여야 하는 이유를 함께 찾아보니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 쓰레기를 매일 기록하다보니 감량할 수 있는 품목이 보이고 줄이려고 노력하니 줄여지더라고, 자원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필요한 제도를 모아 천안시에 제안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시민이 움직이면 쓰레기는 줄어든다 새로운 정책도 만들어진다.

지역에서 동네마다 쓰레기 없는 장터를 기획해 보자.

쓰레기를 줄이려면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녹색소비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쓰레기 없는 장터를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지구와함께놀장'을 기획하였다. 옷장에서 잠자고 있는 옷을 교환하는 21% 파티, 중고책을 나누는 공유책방, 다회용 월경용품 전시회,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 없는 "설거지바 만들기", "제로웨이스트 물품 판매"와 "용기내 떡볶이" 등 쓰레기 없이 즐기는, 자원이 순환되는 장터를 열었다. 일요일 오후 건물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행사에 시민들이 몰까 하는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 손을 잡고, 친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은 쓰레기 없는 장터를 즐겼다. 장터를 마치며 참여자들은 옷도 교환하고 환경정보도 얻어 최고였다며 동네에서 이런 장터가 자주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대규모 시민들이 모이는 환경행사도 좋지만 동네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 물품 교환도 하고 환경정보도 얻고 즐겁게 수도도 떠는, 동네마다 쓰레기 없는 장터를 열어보아도 좋겠다.



착한 소비로 감사한 마음과 지구를 응원하자.

쓰레기를 줄이는 것,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많은 시민이 다양한 녹색소비 경험을 통해 환경문제를 접하고 함께 해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줄이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행동에는 불편이 뒤따른다. 그래서 혼자 하기 보다는 함께할 때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해진다.

오월,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자. 고마운 분들에게 제로웨이스트 상품으로 환경도 생각하는 선물을 건네 보자.

우리가 살아갈 지구에게 착한 소비로, 녹색소비 실천으로 감사함을 전하자.

綠담笑담



전 綠담笑담 살펴보기